

# 한국소설에서의 여성 중간자 인물의 서사적 기능과 사회적 의미\*

—통시적 고찰을 중심으로—

郭 正 植\*\*

## 目 次

|                      |                                  |
|----------------------|----------------------------------|
| 1. 서 론               | 3-2. 개별작품에 나타난 서사적<br>기능의 구체적 양상 |
|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수씨남정귀」의 '설매'                |
| 1-2. 연구내용과 범위 및 방법   | (2) 「潘氏傳」의 媼母 '楊夫人'              |
| 2. 중간자의 개념과 유형 분석    | (3) 「烏有蘭傳」의 '烏有蘭'                |
| 2-1. 중간자의 개념 규정      | (4) 「눈 길」의 '아내'                  |
| 2-2. 중간자의 기능별 유형 분석  | 4. 여성 중간자의 설정과 기능으로<br>본 사회적 의미  |
| 3. 여성 중간자의 서사적 기능 양상 | 5. 결 론                           |
| 3-1. 여성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 |                                  |

## 1. 서 론

###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미 주지하는 대로 소설은 특정 인물의 체험에 기반을 두고 성립되는 것

\*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다. 여기서 체험은 일종의 생명과정으로서 환경과 유기체와의 상호작용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의식의 주체인 인물(성격)과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sup>1)</sup> 소설은 필연적으로 <누가>라는 행위자와, <무엇을 했다>라는 행위, 이 두 가지를 기본 항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한편 어떤 인물을 구체적으로 아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방법은 그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이다.<sup>2)</sup> 인물에 의해 이뤄지는 행동은 인물의 정신적, 기질적 특성을 나타내 보이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작중인물은 분명히 플롯과도 상호의존적인 비평개념이다. 본래 플롯은 <누가>라는 행위자와, <무엇을 했다>라는 행위를 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작품의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편의상 몇 개의 단위로 나눌 경우의 플롯이란 작품 속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되는 행동의 구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sup>3)</sup> 더구나 전체적 사건의 귀납적 의미라는 관점에서의 작품 주제도 인물에 의해서 형성되고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물은 결국 행동을 위한 능력의 복합체요, 주제의 體現者로서 소설의 구조 요소 가운데 第一義의이며 중심적 위치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sup>4)</sup>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물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주인공 또는 중심인물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일종의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개별적, 고립적인 분석에 그쳐 인물의 구체적인 이해는 물론 작품의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중심인물과 부수적 인물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인물의 구체적인 이해는 작중의 서사적 기능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며, 인물의 중요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때로는 부수적 인물이 작자의 의도를 구체화하고 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

1) 여기서 소설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인생을 재현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 가능해진다.(Henry James, *The Art of Fiction*, 尹基漢 역, *小說藝術論*, p. 8, 學文社, 1983)

2) C. Brooks, R. P. Warren, *Understanding Fiction*, p. 168 참조, Appleton-century-Crofts Division of Meredith Corporation, New York, 1959.

3) C. Brooks, R. P. Warren, 앞의 책, p. 77 참조.

4) 이재선·신동욱, *文學의 理論*, p. 102, 學文社, 1986

우를 볼 수 있다.<sup>5)</sup>

항목을 달리해서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렇게 작중기능에 있어 크게 중요성을 갖는 부수적 인물 중의 한 부류가 중간자이다. 여기서 중간자 인물을 따로 설정하여 여타의 부수적 인물과 구별해서 살펴야 하는 까닭은 작중에서의 의미있는 역할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중간자 인물이 개별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분석하여 보다 유용한 소설독해의 한 방법론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내용과 범위 및 방법

본고는 종래 소설의 인물연구에서 중심인물 위주의 편향성으로 인해 흔히 간과되기 일쑤였던 부수적 인물 가운데서 중간자 인물을 따로 구분하고, 이들의 서사적 기능과 사회적 의미를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시도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간자 인물을 여성으로 한정해 두는 것은, 되도록 범위를 좁히는 것이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간자 인물에는 적대관계를 이루는 중심인물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갈등의 내용이나 성격 등에 따라서 남성 인물이 되거나 여성 인물이 되거나 할 수가 있겠는데, 본고에서는 여성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과

5) 李廷卓이 먼저 부수적 인물에 초점을 맞춰 그의 작중기능에 관심을 보인 것(裨將과 房子の 作中機能-裨將傳을 中心으로-, 국어국문학논문집 7-8 합병호, 東國大, 1969.)이 계기가 되고, 그 후에 金興圭(房子和 말뚝이-두 典型的의 比較-, 韓國學論集 5, 啓明大 韓國學研究所, 1975.), 朴明花(古代小說에 나타난 附隨的人物分析, 誠信女大 大學院, 1975.), 최금순(房子和 포올스타프의 性格 對比論, 高麗大 教育大學院, 1977.), 박영철(房子の 民衆意識과 限界-烈女春香守節歌와 裨將傳을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15,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78.), 權斗煥·徐鐘文(房子型 人物考, 韓國小說文學의 探究, 一潮閣, 1978.), 金鉉龍(古小說의 房子 素材,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鄭夏英(月梅의 性格과 機能, 古典小說研究의 方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5.), 곽정식(裨將의 성격 유형, 어문학 교육 8, 한국어문교육학회, 1985.), 박종섭(춘향전 방자의 성격연구, 계명대 대학원, 1987.), 許禧(古小說의 人物研究-仲裁者를 中心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7.) 등이 계속해서 이 방면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그러나 '방자' 인물에 대부분 치우쳐 있고, 그나마도 개별적이며 고립적인 분석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해서 중간자로서의 작중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오늘날 심리학과 사회학의 발달과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소설이 인생의 비판과 해석 내지는 인간성 탐구의 한 방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인물의 진정한 이해가 他者와의 관련양상 또는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소설의 인물연구에서 중간자를 특히 주목하는 이유도 인물의 작중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그 절차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먼저 중간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서구이론에서 들어온 仲介者(model), 仲裁者(mediator)와의 차이점을 밝힐 것이며, 아울러 가능한 경우의 작중 서사적 기능을 고려해서 중간자의 하위 유형을 설정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작품에서 여성 중간자의 작중 서사적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유형별로 살펴되, 「스씨남정기」·「潘氏傳」·「烏有蘭傳」·「눈 길」 등 4편으로 작품분석의 범위를 한정하고, 되도록이면 중간자의 서사적 기능과 관련한 특징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끝으로 여성 중간자의 설정과 그 기능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여성 중간자의 서사적 기능은 사회구조의 변화나 현실생활에 있어서의 여성의 사회적 역할(또는 기대역할)과도 상응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중간자 인물의 기능적 유형성을 분석하는데는 사회학의 갈등이론이 주로 원용될 것이고, 작중기능을 살피기 위한 작품분석은 구조주의 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다.

## 2. 중간자의 개념과 유형 분석

### 2-1. 중간자의 개념 규정

원래 소설에서 작자와 독자가 보여주는 관심 및 애정의 정도를 기준으로 인물을 분류할 경우에 있어서 일차적 인물, 이차적 인물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던 Protagonist, Antagonist란 말이 점차 소설을 작중인물 사이의 '갈등구

조'로 파악하게 됨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해석되게 되었다. 근대 이후의 소설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으로 Protagonist와 Antagonist 사이의 대립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더욱 간접적이면서 다양한 수법을 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선과 악, 이상과 현실,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 사이의 갈등 구조를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중간자 인물은 이와 같은 작품 내적인 갈등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는 제3의 인물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간자는 주인공(Protagonist)과 적대자(Antagonist)라고 하는 두 대립적, 상극적인 인물 사이에 제3자(Tritagonist)로서 개입하는 작중인물이다.<sup>6)</sup> 그리하여 중간자는 표면상 부수적 인물에 속하기는 하지만, 중심인물의 어느 한쪽에 대해 일방적인 예측을 인정하지 않는 개별적 자아로서의 성격이 강한 존재이며, 중심인물들에 의해 성립되는 갈등의 체계 내에 직접 개입해서 사건전개에 다양한 형태로 이바지하는 인물이다. 이처럼 중간자는 소설의 내적 구조에서 갈등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중심인물과 구별되고, 중심인물의 어느 일방에 단순히 도구적 존재로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여타의 부수적 인물과도 구별된다. 이렇게 볼 때, 중간자는 자기대로의 의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별적 자아, 자의식적 인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중간자 인물은 주인공과 적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갈등과 긴장의 체계' 내에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중심인물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조정하면서, 때때로 입체적인 행동을 통해 상대역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사건전개의 주역으로 상승해 가는 행동양식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간자 인물이 중심인물 사이에 직접 개입해서 그들과 관계를

6) 中間者란 용어는 먼저 蕪溟江이 엄밀한 개념규정 없이 「兩班傳」, 「심청전」 등 조선조 후기소설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바 있다.(朝鮮王朝小說研究, 檀國大學校出版部, 1978.) 그러나 이는 행위 또는 기능을 중심개념으로 하고, 여기에 인물을 종속시키는 것이어서 중간자가 중심인물이 될 수도 있고 부수적 인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체계화가 곤란하다. 따라서 인물을 중심개념으로 하는 本稿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맺는 데는 대체로 앞, 의무, 의지, 가능성 등과 같은 동기가 작용하고 그로부터 이끌어 내는 결과는 실패, 성공, 방해, 유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 다양한 결과가 작가의식의 반영이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작자는 중간자의 설정을 통해서 작중개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한편, 독자의 입장에서는 중간자를 통해 개별 작품의 전체적 의미는 물론 작자의식을 비롯한 변천하는 시대의 요구 및 가치관, 의지 등을 아주 효과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작품에서나 흔하게 중간자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심인물에 대해 중간자가 취하는 태도와 역할은 분명히 소설독해를 위해 아주 유용한 방편이다. 부수적 인물이 중심인물의 행동변경 안에서 그 역할이나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구적, 장식적 효과 이상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과 비교하면 중간자 인물의 성격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간자는 르네 지라르의 이른바 욕망의 중개자나 민담의 중재자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욕망의 삼각형'에서의 중개자는 모델의 성격을 띠고 작품 바깥에 존재할 뿐, 실제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단지 주체와 대상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때 대상이란 것도 주체가 중개자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중재자는 실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이미 마란다가 인정했던 대로 성공과 실패 이외에 달리 기능적 다양성이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sup>7)</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개자와 중재자는 이미 용어 자체가 말해 주듯이 기능을 중심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중간자는 반대로 인물을 중심개념으로 하고 다양한 기능을 그것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sup>8)</sup>

7) René Girard, 김윤식 역, 小說의 理論, 삼영사, 1983. E. K. Maranda & P. Maranda, Structural Models in Folklore and Transformational Essays, The Hague, Mouton, 1971, p. 36 참조.

8) 拙稿, 古小說의 中間者 人物에 관한 研究, pp. 8-9 참조, 경성대 논문집 11집 3권, 1990.

## 2-2. 중간자의 기능별 유형 분석

소설에서 인물의 기능론적 이해에는 사회학의 갈등이론이 크게 참고가 된다. 달렌도르프에 의하면, 사회 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갈등을 통해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사회이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갈등을 근원으로 하여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sup>9)</sup> 이를 참고할 것 같으면, 소설에서의 갈등이론이 밝혀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집단 또는 인물 사이의 갈등이 소설구조에서 어떻게 변동을 일으키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의 모든 조직이 궁극적으로 兩者(dyad)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 확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짐멜은 두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가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三者 關係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관계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때 제3자가 담당하는 역할로서, 1. 公平한 仲裁者(The Nonpartisan and Mediator), 2. 漁夫之利者(The Teritus Gaudens), 3. 分割 및 支配者(Divide et Impera) 등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sup>10)</sup> 이같은 견해를 원용할 때, 소설의 중간자는 기본적으로 양자 관계를 삼자 관계로 바꾸면서 질적인 변화까지도 이끌어내는 제3의 인물유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자의 작중기능이란 것도 결국은 삼자 관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질적 변화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갈등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 1) 안내(guidance)
  - 2) 화해(peacemaking)
2. 갈등관계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 1) 離間 (estrangement)
  - 2) 批判 (criticism)
3. 갈등관계의 변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9) R. Dahrendorf, *Toward a theory of social conflict, social change*, A. Etzioni, E. Etzioni ed. p. 107, New York, Basic Books, 1973.

10) Kurt H. Wolff, tr, and ed,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pp. 145-169, The free press, 1965.

- 1) 傍觀 (onlooking)
- 2) 幫助 (backing)

이와 같은 三分法은 짐멜의 그것에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지만 각기 그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세분하고자 하였다. 먼저 긍정적인 변화를 의도하여 공평한 중재자로 개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역할이 다만 갈등관계의 해소에 어떤 계기만을 제공할 뿐,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은 갈등 당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전과정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갈등 당사자들로 하여금 서로 양보하여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예도 있다. 이같은 기능적 차이 때문에 각기 안내와 화해로 구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심인물 사이의 갈등관계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간자가 취할 수 있는 역할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갈등관계를 이루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하리를 높아 버성기고 서로 멀어지게 하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예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간자 자신이 직접 당사자를 상대역으로 하여, 성격이나 행위, 판단 따위를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밝혀서 공격하는 예도 있다. 그래서 보다 소극적인 것을 이간으로, 적극적인 것을 비판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화해와 비판은 중간자의 역할이 한층 적극적인 것이며, 안내와 이간은 보다 소극적인 점에서 또한 공통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중간자가 화해 혹은 비판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경우, 때로 사건전개의 주도적 인물로 상승하게 되고, 특히 비판적인 중간자에게서는 갈등 당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간자가 갈등관계의 변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갈등 당사자 쌍방에 의해서 제3자의 작중개입이 제약을 받은 결과인 경우와, 중간자 자신이 사적인 利害에 얽혀 당사자들의 갈등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갈등관계를 이용해서 漁夫之利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이를 각각 傍觀과 幫助라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중간자로 개입하는 인물의 작중기능은 안내, 화해, 이간, 비판, 방관, 방조 등 여섯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작중기능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중간자의 인물유형은 1) 안내자 (guide), 2) 화해자

(peacemaker), 3) 이간자 (mischief-maker), 4) 비판자 (critic), 5) 방관자 (onlooker), 6) 방조자 (backer)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인물이 작중에서 취하는 태도나 역할은 性的 혹은 심리적, 사회적 특성과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는 까닭에 1) 중간자가 남성(또는 남성적)인 경우와 여성(또는 여성적)인 경우, 2) 중간자의 성격이 권위적인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3) 중간자와 갈등 당사자 사이의 신분관계가 수직적인 경우와 수평적인 경우 등 몇 가지 기준을 덧붙여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중간자의 설정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간자의 설정이 작자의 작중개입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음을 뜻한다.<sup>11)</sup>

### 3. 여성 중간자의 서사적 기능 양상

#### 3-1. 여성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

그러면 이제부터 중간자가 여성일 경우에 있어서 작중 서사적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로 하겠는데, 이를 위해 먼저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간단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는 여성 중간자의 작중기능이란 결국 여성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기질을 '강하다'고 하고, 공격성·능동성·지성적·지배성 등으로 나타내는 데 비해, 여성의 그것은 '부드럽다'고 하면서, 수동성·비지성적·유약성·덕성 등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남녀간의 기질의 차이는 각각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태도와 역할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하겠다. 프로이드는 수동성을 여성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안정된 심리적 특질로 이해하였다. 여기서 수동성의 기본적인 뜻은 외부로 향한 활동성의 결여나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의미한다. 한편 바드위크는 여성의 공격성과 관련해서 말하기를, 여성은 밖으로 향한 능동성 대신에 미묘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

11) 拙稿, 앞의 논문, pp. 11-12 참조.

며, 그것은 직선적이라기보다는 곡선적이고 섬세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2)</sup> 어쨌거나 수동성을 여성심리의 특성으로 이해하면서 정상적이고 전전한 여성다움의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는 정신분석학자들의 견해는 생물학적 근원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여성심리적 경향은 생물학적 요소보다 사회문화적인 힘에 의해 특성이 결정된다는 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역할의 차이는 생리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과 훈련의 문화적 패턴의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 여성의 특수한 지위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사회가치와 관습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것은 家父長의 大家族制度였다. 父系 繼承을 통한 가족의 永續性과 家中心思想에 기반을 둔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당연히 개인보다는 가족 우위사상을 낳았다. 집의 영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많은 자녀를 필요로 하였고, 특히 부계 혈연 계승을 위해서는 남아출산이 절대적이었으며 결혼에 있어서도 가족간의 결합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 때문에 강력한 家長權을 필요로 하였고, 반면에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家長權의 확대에 반비례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男女七歲不同席이라 하여 이성간의 상호접촉은 일체 금지되었고, 결혼은 주로 중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 속에서 자기를 죽이고 무조건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성의 가장 큰 미덕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질서인 '효'가 모든 윤리의 기본이 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았으나 어머니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喪禮와 祭禮時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의식에 차이가 없었으며, 內外命婦制度에 의해 부인과 남편은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尊長權에 의한 어머니의 권리와 더불어 夫婦有別에 의해 家事權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결정권도 인정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연히 가정관리에 있어서는 여성들간에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어머니로서의 尊長權이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sup>13)</sup> 요컨대 전통사회의 여성은 남

12) 이근후, 프로이드적 여성심리 이해, 女性學 新論, pp. 145-148 참조,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77.

성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고 가족 내의 역할에만 국한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어머니로서의 존장권 행사와 남성과 격리된 여성만의 사회에서의 역할 배분 및 家督權의 행사 등으로 말미암아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개방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으며, 그 역할 또한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 여성의 생활이 기본적으로 가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역할에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남녀관계에 있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정치, 경제 및 가족구조적인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여성이 공적인 일과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그들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빈번해졌다. 건전한 사회는 남녀가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사회적인 요청에 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여성이 사회적인 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는 것은 남성들 역시 병들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성과 협동적인 조화를 이루게 되어야만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존 러스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은 失敗와 罪科를 범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였다.<sup>14)</sup> 또 흔히 여성은 貞順하며 덕성적이고 안정적이며 포용력이 있다고 한다. 몸소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 기르는 생리적 및 심리적인 능력을 가져 모든 인간이 여성의 품 안에서 자라면서 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여성은 평화스럽고 온화한 분위기의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능력이 있다. 더구나 가정은 정서적, 사회적 공동유대의 기반이다. 책임있는 애정과 인격적인 융합, 도덕적인 인간관계의 발전이 이뤄지는 곳이다. 여성이 기본적으로 가정을 벗어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3-2. 개별작품에 나타난 서사적 기능의 구체적 양상

- (1) 「스씨남정기」<sup>15)</sup>의 '설매'-이중 기능의 중간자(부정적 이간자, 긍정적

13) 이동원,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 女性學, pp. 380-381 참조.

14) John Ruskin, Of Queen's in Sesame and Lilies, p. 144, Homewood Publishing Company, 1902.

15) 이는 조동일 교수 소장본으로 서포 김만중의 국문원본계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안내자)

원래 설매는 사씨에게 하숙된 인물이긴 하더라도 교씨에게 하숙된 남매와는 분명히 다른 성격의 인물이다. 남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전을 위한 도구적 인물로 행동하지만, 설매는 상전인 사씨에게 구속되지 않는 행동으로 사씨와 교씨 사이의 긴장관계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서 아주 긴요한 구실을 한다.

1) 교씨 동청으로 더부러 날마다 빅즈당에 모와 조금도 기탄할 일이 없 난지라 교씨 동청다려 무려왈 혼님은 원처에 가고 스씨난 도라오지 아니하니 잊적을 타 반간합이 엇더호요 동청왈 니 혼 뵈 이시니 스씨 비록 죽기난 면호으나 반다시 이 집은 들오지 못호리라 호고 교씨에 귀에 디고 가만니 말하여 왈 여추여추호라 교씨 청필에 디열왈 남군의 뵈난 가이 칭양치 못호 리로다 진정 이 뵈 그 아무 좃던 뵈라도 더홀 수 업시나 엇더한 스람으로 이 뵈을 힝코자 호나야 (30장 뒤-31장 앞, 띄어쓰기 : 필자 주, 이하 같음)

2) 동청왈 니 심복 한 스람은 영이하고 예식 만호니 족히 이 뵈을 힝홀 듯호되 다뭇 사부인 평싱의 사랑호던 기물을 도적호 후에 힝호리라 (31장 앞)

3) 교씨왈 스부인 비즈 설미난 곳 남미 스촌니나 설미랄 뵈우면 기물을 가히 도적호리라 호고 설미를 불너왈 부인은 신성에 가시고 네 혼즈 빈집을 직히니 신고호기 일을 것 업도다 하고 식물을 만니 주니 설미 크게 깃거하 거날 교씨 남미로 하여곰 설미게 가서 사부인 기물 도적호출 쓰슬 말하니 설 미 왈 부인니 기물은 방중의 다 옛코 뵈을 치와시니 반다시 갓탄 기금을 어 더야 도적호리라 남미 듯고 도라와 교씨게 설미 호던 말을 전하니 교씨 식 로 기금을 짓고자 호디 일이 발각할가 녀여 겁을 니더니 맛참 보니 여러 기 금총중의 갓탄 기금이 잊거날 가지고 나와 남미를 주며 왈 스부인 봉치 옥 환은 부인 평싱에 사랑호던 물이요 또 혼님이 익이 아난 물이라 호니 교씨 크게 깃거하여 설미를 중승호고 동청으로 호여곰 그 뵈을 힝코자 홀추(31장 앞-31장 뒤)

여기서 1)은 교씨가 동청과 더불어 사씨를 해치기 위한 계략을 꾸미는 내용 이고, 2)는 동청이 냉전을 계략의 실행자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 3)은 계략의 실행에 앞서 반드시 사씨의 옥지환이 필요한데, 이를 교씨가 사씨의 시

---

알려져 있다.(李金喜, 「사씨남정기」의 文獻學的 研究,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86)

비 실패로 하여금 흠쳐내게 한다는 내용이다. 교씨와 사씨는 긴장관계의 직접적인 두 당사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일방인 사씨는 모부인의 병환과 治喪 때문에 친정에 가고 없으며, 한림 또한 암행어사에 제수되어 집을 떠나게 되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교씨가 계략을 꾸며 실패를 유인한 것이다. 그리하여 실패는 상전인 사씨가 평소에 아끼던 옥지환을 흠쳐내게 되었고, 교씨는 다시 이를 냉진에게 주어, 사씨를 곤경에 처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실패는 부정적 이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실패의 이같은 이간자로서의 행동은 순전히 개인적 동기와 물질적 이해에 기인하는 것이다. 교씨는 사씨가 친정에 가고 없는 동안 혼자 빈집을 지켜온 실패를 불려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음식과 물건을 많이 주어 환심을 샀으며, 또한 교씨의 시비 납매가 실패와 사촌 사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실패는 다시금 의외의 난경에 처하게 된다. 납매는 상전의 기물 훔친 일을 구실로 실패를 협박하여 장주 살해의 음모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4) 설리 가로되 소비 죽을 지경에 이르러시니 바로 고향리이다 부인니 소비 양인을 부라시거든 가온즉 부인왕 인으 중주난 세불양입이라 여등은 중주랄 죽이면 중송을 주리턴 하시미 소비등이 누일을 경영하디 틈을 타디 못하여습더니 마춘 중주 난간의서 좁자고 보난 스람이 업난 고로 춘방이 중주랄 읍술하오미 소비난 만신니 쉼니여 보지 못하여습더니다 (42장 앞)

5) 춘방이 설리랄 크게 꾸디저 가로되 네 부인을 팔니고 죽기를 면코저 하나냐 죽어시면 죽엇지 만만부동흔 소뢰로 빙옥고탄 부인으게 미루냐냐 기와 뜻갓탄 형실이라도 너와 갖지 으니향리라 네 비록 죽기랄 면하여도 하나 리 반다시 너를 죽이리라 하고 변치 아니하고 중후에 죽으니 (42장 앞)

위에서 4)는 실패가 거짓으로 교씨의 아들 장주의 죽음을 사씨의 사주를 받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 하여, 교씨가 사씨를 모함, 누명을 씌우는 일에 동조하는 내용이고, 5)는 역시 사씨의 시비 춘방이 죄없는 사씨를 실패가 모함하자, 죽기를 각오하고 사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결국 여기서 대조되는 두 인물을 볼 수 있다. 춘방은 상전인 사씨의 결백을 주장하다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으나, 실패는 자신이 살기 위해 교씨의 계략에 동조, 상전인 사씨를 모함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춘방이 신분상의 연속관계에 충실한 개성 없는 인물이라면, 실패는 개인적 욕망과 이해를 좇아 사회제도와 인습을 거

부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설매가 미처 개인적 욕망과 이해에 눈뜨지 못한 인물이라면, 상전인 사씨에 대한 기만과 모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춘방은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설매는 이같은 부정적 이간자로서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악간의 심각한 대결을 문제삼고, 마침내 선의 승리라는 규범적 질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씨가 제대로 이해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설매가 사건의 전면에 다시금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結者解之인 것이다.

6) 교씨 설먹드려 일너할 인오난 이 화근니라 만일 두면 너까지 화를 입을 거지니 여등은 이 물에 썬지고 오미 울흐니르 하거날 (75장 뒤)

7) 설먹 인오를 안고 물에 썬지고저 하다가 흘연니 슬픈 심각호여 왈 스부인니 나를 심히 사랑호신거슬 니 비판호고 교씨로다려 허언을 주출호여 디화를 부인게 밋게 호고 또 공주를 죽인즉 역천호기 심호리라 엇지 두렵지오니 호리요 호고 가마니 잘티 수물 속이 두고 도라와 교씨에게 보호니 (75장 뒤)

6)은 교씨가 설매로 하여금 사씨의 아들 인아를 물속에 빠뜨려 죽게 하라는 것이고, 7)은 설매가 사씨에 대해 배은망덕한 죄를 뉘우치고, 인아를 죽이라는 교씨의 명을 거역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설매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실존적이고 생동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입체적인 행동을 통해 사전전개에 역동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작품에 대해 전반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8) 설먹을 소비가 우호로난 황천을 저바리고 아티난 쥬인을 쏘여소니 처옥이 여순호은지르 승공이 만널 소비에 이전 죄랄 용서호오시면 맛당이 바로 고토호리이다(79장 뒤)

9) 설먹 머리롤 쐈다리고 울며 왈 스부인은 비복들 디접호기뵐 존식갓치 호시난것습 소비 남피와 교씨에 썬유미 빠져 여츄여츄호라 호오미 육환을 도적호음고 여츄여츄호르 하오미 중주랄 급스호오리 스부인으로 디화롤 입게 호오니 소비에 죄난 만스유경이음고 또 교씨가 동청으로 스통호와 당초 저주지스난 교씨와 이십낭의 소위음고 저주지서랄 위호호음은 동청에 소위

읍고 승공이 지적학음도 교씨와 동청에 주지훈 후에 교씨가 가니지물을 써 러섯고 동청을 따라가읍고 인으공조랄 강물에 써져 죽여스오니 소비 비록 천닌니르도 일즉 이런 일은 보지 못학읍고 교씨 또 투기학기롭 손혹히 학와 시너비드리 중부 읍페 만닐 갖가이 학오면 문듯 악형으로 치즈오니 소비난 비록 성명은 보전학여스오나 필경은 죽을 고졸 이지 못학도소이다 (79장 뒤 -80장 앞)

8)는 설매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면 진실을 고하겠다고 하여, 한림이 승낙하는 내용이고, 9)는 설매가 집안에 일어났던 불미스런 일들이 모두 교씨가 동청과 짜고 저지른 것이었음을 밝힌 내용이다. 이것은 사태의 역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 제공으로서, 그동안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오던 사씨와 교씨 사이의 긴장관계에 일대 전환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설매는 비록 소극적인 안내자로서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긴장관계의 해소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스씨남정기」에서 설매는 결국 부정적 인간자와 긍정적 안내자라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자라고 할 수 있다.

(2) 「潘氏傳」<sup>16)</sup>의 媼母 '楊夫人'-실패한, 권위적 화해자

이 작품은 전편이 3회로 나누어진 章回小說인데 애초 며느리들 사이의 긴장 관계에 楊夫人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 제1회의 줄거리를 단락으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魏允은 이부시랑에 올라 경사에 가 있고, 부인 반씨는 시모 양부인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사람마다 일컫는 바가 되다
- 2) 魏允의 두 아우 眞과 準은 爲人이 昏暗한데다, 그들 아내 蔡氏와 孟氏 또한 불량하여 반씨를 모함하고 장차 모해하려 하다
- 3) 楊夫人이 두 子婦의 간악함을 알고 자주 曉諭하는 한편 그들의 侍婢한 태도를 각별히 충고하다
- 4) 채씨가 도리어 원한을 품고 媼母를 면박하다
- 5) 양부인이 眞, 準 형제를 불러 齊家를 분부하고 채씨를 본가로 보내어 悔改하게 하다
- 6) 채씨가 본가로 돌아가 반씨를 참소하매, 좌승상 蔡鳳父子는 권세를 믿고 雪憤코자 하다
- 7) 채봉 부자가 황제에게 예부상서 위윤과 병부상서 반옥을 참소하다

16) 東國大學校 韓國學研究所 編, 活字本 古典小說全集 卷二, 亞細亞文化社, 1976.

- 8) 황제가 채봉 부자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조정공론에 좇아 위윤과 반옥을 速寔定配하다
- 9) 양부인이 큰 아들의 정배 소식을 듣고 득병하여 손자 魏興에게 입신양명을 당부하고 眞과 準을 불러 채씨를 영접하지 못하게 유언한 후 棄世하다
- 10) 眞이 모친 유언을 저버리고 門中の 만류에도 불구하고 채씨에게 通訃하다
- 11) 채씨가 돌아와 반씨 母子를 꺾박하고 모함하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작중인물이 명문거족의 자손으로 이들이 형제와 동서, 고부관계로 맺어지고, 다시 이를 근거로 하여 가문과 가문의 대결로 사건이 확대, 발전하게 된다. 먼저 세 형제 중에서 長子인 위윤만이 일찍 등과하여 벼슬길에 올라 있고, 그의 아우들은 늦도록 이에 실패한다. 더구나 위윤은 위인이 청렴결백하고 효성이 지극하며, 齊家를 잘해서 아내 반씨와 內外和順한 말하자면 修身齊家와 立身揚名의 표본적인 인물로서 유교적 인물관에 부합하였다. 그런데 두 아우 진과 준은 위인이 혼암하여 늦도록 입신도 못한 채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불량한 아내 채씨와 맹씨에게 미혹됨이 많았다. 이러한 가족관계에서 채씨와 맹씨는 동서 반씨를 모해하려 하였고, 이에 시모 양부인이 동서간의 화해를 의도하고 사건전개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여동이 님의 내집의 님현훈 후로는 가중을 화평이 흥미 울켜늘 반씨를 식우후야 큰 거조를 님우고즈 하니 엇지 중부를 디접하는 도리리요 여등은 다시 니런 거조를 힝치 달나 (449장)

여동이 각각 타문녀주로 내집에 드러와 의로씨 동심이 되니 엇지 년분이 중치 아니하니 맛당이 형제지도를 온전이 후야 가도를 반키면 일문지힝이어 늘 반씨의 업는 허물을 유작후야 대의를 모르고 불의를 힝코즈 하니 이 엇지 가문에 불힝이 아니리오 추후는 삼가고 조심하라 여동이 만일 힝스물 곳치지 아니하면 결단코 본가로 보너리니 하야금 기과환 후 오게 후리라 (450장)

이처럼 시모는 각기 다른 집안의 자손으로 한집에 들어와 형제간이 된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두 자부에게 형제의 도리를 강조했지만, 그러나 두 자부는 시모의 책망과 훈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만을 가지고 시모의 처사가 부당함을 들어,

첩등이 진실노 모히호은 비 업습거늘 금일 존고의 일으심을 듯자오리 반  
씨의 아첨하는 말을 신청하시오 오직 첩등만 그르다 호시니 원민호오며  
(450장)

하고 반박하고, 이어서 웃어른의 도리에 어긋남을 지목하여 정면 대결로 나  
아간다.

소첩등이 본디 각집 주손으로 존문의 님승호와 주야 동동축축호와 그스  
를 섬기은즉 설혹 불미지스 잇슬지라도 관서호실지라 첩등이 본디 골육지친  
이 아니 엇지 각별호은 경이 잇소오리잇고 존고계옵서 삼조를 두사 장성  
호은 후 지극호은 주익 다름이 업슬 듯호오리 기중 입신호은 주부는 사랑  
이중호시고 입신치 못호은 주부는 경이 업서 박결호시미 여초과중호심 호물  
며 친모자지간도 여초호시거든 호물며 남의 집 주손을 골육그치 호라 하시  
나 엇지 순종호오며 우의셔 인종을 두지 아니호시면 엇지 지하리 화목지 아  
니호오리잇고 존고계셔 묻져 불초호은 주석들을 그르다 호오시니 첩등이 엇  
지 원굴치 아니호리잇가(450장)

위에서 보는 것처럼, 시모는 채씨 등에게 형제간 도리와 宗婦에 대한 대접  
등 전통적 가족윤리관을 들어 타일렀으나, 도리어 채씨 등은 골육지친이 아닌  
데 각별한 정이 있을 수 없고, 또 불미한 일이 있더라도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  
이 어른의 도리라고 하면서, 출세한 아들만을 편애한다고 하여 시모를 공박하  
게 된다. 여기서 시모의 긴장관계 해소를 위한 제3자적 개입은 명백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 된다. 시모가 애초에 문제의 蔡氏, 孟氏 두 자부를 책망하고 혼계  
해서 潘氏와의 동서간 화해를 이끌어내려던 본래의 의도는 도리어 시모 자신  
이 책망과 혼계를 듣는 것으로 되고 말았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시모라는 자  
리가 전통적인 권위의 상징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시모와 채  
씨 등은 이미 그들이 지닌 가치관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 이 때문  
에 시모의 화해자적 기능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시모가  
채씨로 인한 아들 위윤의 유배로 得病棄世하게 되는 데서는 시모로서의 권위  
추락과 함께 화해자적 기능의 결정적인 실패를 보여주게 된다. 그리하여 다음  
의 사건전개에 등장하는 시모의 혼령은 이제 제3자적 화해자일 수는 없으며,  
潘氏 母子의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그 성격과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따라  
서 「潘氏傳」의 媵母 楊夫人은 권위적 화해자로서의 중간자적 기능에서 실패한

인물인 것이다.

(3) 「烏有蘭傳」<sup>17)</sup>의 烏有蘭-상승적 화해자

이 작품은 간단히 말해서, 한 젊은 관인 후보자가 오유란이라는 기생을 만나 晬絶과 망신을 당한 끝에 중대한 성격상의 변화를 겪고 새로운 삶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그린 이니시에이션 스토리로서, 긴장관계를 이루는 인물은 이생과 김생이다. 그들은 다같이 재상가의 자제로 집안의 문벌이나 덕망이 서로 비슷해서 世交가 두터웠으며, 더구나 생년일시까지 符契처럼 일치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管鮑의 우정을 굳게 약속하고, 周召의 功을 기약하며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침식까지 함께 한 사이였다. 말하자면 이생과 김생 사이에는 일종의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인물 사이의 동일성은 과거시험을 계기로 혼란과 위기를 맞게 된다. 김생은 장원급제하고 감사에 올라, 일찍이 서로 약속했던 周召의 功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나, 이생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감사가 이생에게 평양에 동행할 것을 간청하지만, 이생은 서로의 처지가 다름을 들어서 거절했던 것이다. 여기서 김생과 이생 사이의 긴장관계가 결국 관인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한 자와 이에 실패한 자 사이의 그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관계는 이생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생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김생은 이생을 평양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생은 관인들이 베푸는 성대한 잔치에 초대되어 갔다가 지나친 행동과 고집으로 무례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때문에 수많은 관인들과 기생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다. 이는 이생이 관인사회에서 행해지는 독특한 관습에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매우 경직된 인물임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이생과 김생 사이의 동일성이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생과 김생 사이에 조성된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것도 긴장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김생의 주선으로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이 오유란이다. 그런데 오유란은 일단 이생과 김생 사이의 긴장관계에 개입하게 되자, 이생을 상대역으로 하는 주역이 되어 이생의 晬絶과 망신이라는

17) 金起東 編, 原文漢文小說選, 大提閣, 1979.

일관된 목표를 향해 사건을 진행시킨다. 여기서 이생의 궤절과 망신은 결국 경직성을 소거하는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일차적으로는 오유란과의 만남과 交情이며, 다음은 假鬼素材에 의한 鬼靈과의 交歡으로, 다시 그 자신마저 死者가 되어 鬼靈으로 배회하다가 감사로부터 赤身임을 지적당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또한 상징적인 입사식의 절차에 긴밀히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생에게 있어 오유란과의 관계 맺음은 ‘우주적인 밤’에로의 상징적인 귀환이며, 인격의 해체를 통한 새로운 탄생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제 이생은 그가 애초에 김생과 더불어 기약했던 대로 남아의 공명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하고, 管鮑의 風을 다시 불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자면 이생이 벼슬길에 오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는 능히 그만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지식과 지혜는 입사식의 열매로 간주되기 때문이다.<sup>18)</sup>

오유란과의 관계로 인해 이생은 감사에게서 봉변을 당하게 되지만 도리어 설분을 다짐하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 설분을 기약한다는 것이 벼슬길에 나아감을 전제로 한 것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이생은 더욱 적극적인 인물로 행동한다. 왕이 文廟에 참배하심을 알아내고 글을 품고 가서 울렸던 바, 다행히 왕의 눈에 들게 되어 한림학사에 뽑히고, 다시 암행어사를 제수받아 서주로 가게 되니, 행로가 흥겨웠고 의기가 양양했다. 술도 마시고 또 노래도 지어 불렀다. 唱歌飲酒를 매도하고 정절을 앞세웠던 이생으로서는 실로 놀라운 변화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이생과 김생, 오유란 사이에 쉽사리 화해가 성립되고, 더구나 이생과 김생은 그 정의가 날로 두터워져 평생 변함이 없었고, 서로 도와서 정승에 올랐다.

여기서 오유란의 신분이 하층에 속하는 기생이고, 긴장관계의 두 당사자가 상층신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상승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오유란의 화해자적 기능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4) 「눈 길」<sup>19)</sup>의 ‘아내’-수평적 화해자

이청준의 단편 「눈 길」은 일인칭 서술자 ‘나’를 주인공으로 하고 현대인의

18) M. Eliade(李東夏 역), 聖과 俗, 宗教의 本質, p. 151, 학민사, 1983.

19) 文藝中央, 가을호, 1977, 李清俊, 豫言者, 문학과 지성사, 1977.

심리적 불안의식을 다룬 귀향형 또는 여로형의 소설인데, 처음부터 '나'와 '노인'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여기서 '나'와 '노인'은 母子關係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에 대해 빛진 것이 없는 멧멧한 처지임을 눈물겹도록 강조하고, 마침내 어머니를 '노인'으로 지칭한다. 이는 어머니와의 심리적 거리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母子關係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이 없다. 이같은 심리적 거리화의 이면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즉 '나'는 고등학교 일학년 때兄의 酒癖으로 가계가 파산을 겪고부터 대학을 마칠 때까지 고학을 하는 동안 온갖 고생을 해야 했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서울에서 직장을 얻어 결혼을 할 때까지 줄곧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 그동안 어머니는 자식인 '나'에게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전혀 다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빛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인공 '나'는 인간관계를, 더구나 모자관계까지도 일종의 거래관계로 인식하는 인물이다. 말하자면 '나'에게 있어 모든 가치의 척도는 물질이다. 이에 비해 노인은 일흔이 넘은 지금까지 굶은 밥 먹고 굶은 옷 입고 굶은 잠자리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웃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굶은 소리 한번 안 듣고 살아온 만큼, 끝내 인간적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인물이다. 또한 노인은 큰 아들의 주벽으로 인해 작은아들인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여기에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까지도 감추고 사는 체념과 염치, 그리고 무표정이 체질화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나와 노인 사이의 긴장관계는 결국 빛진 것이 없다고 여기는 멧멧함과 빛진 것이 많은 부끄러움 사이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잘못된 모자관계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나와 노인, 다시 말해서 '멧멧함'과 '부끄러움' 사이의 긴장관계에 '아내'가 제3의 인물로 개입하는 것이다. 아내에게 있어 '노인'은 그냥 노인일 수 없으며, 시어머니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당신은 참 엉뚱한 데서 독해요. 늙은 노인네가 가없지도 않으세요. 말씀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위로를 드릴 수 있었을텐데 말예요”

이를 계기로 아내는 '나'와 '노인' 사이의 긴장관계에 개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내의 역할은 우선 노인의, 부끄러움으로 인해 은밀하게 감춰진 소망을 노

골짜기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노인'은 인간적 품위를 결코 잃지 않으려는 성찰과, 자식에게 자신의 몫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일종의 속죄의식에서 좀처럼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의 소망을 노골화하는 데는 아내의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한 노력이 요구되었고, 그 때문에 아내가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전개에서 주역으로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낡고 비좁은 단칸오두막에서 시작되는 '노인'의 이야기는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표상하고 있는 방구석의 옷케로 이어지고, 다시 옛날에 남보란 듯이 떳떳하게 지니고 살았던 크고 넓은 집이 아름다운 꿈처럼 떠올려진다. 그러나 거기서 큰아들의 주벽으로 가산을 다 날려버리고 작은아들엔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게 된 恨스런 母情과 만나게 된다. 그것이 노인으로서의 전혀 새삼스러울 게 없는, 그래서 며느리에게 담담하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나'에겐 그저 놀랍고 두려운 것이었다. 그것은 두꺼운 접질물 깨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아픔, 자기 존재에 대한 뼈아픈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간 빈집에서 마지막 하룻밤을 지내고, 두 모자가 새벽 눈길을 걸어서 신작로까지 나와 작은아들을 버스에 실어 보내고 혼자서 외로운 길을 돌아오던 때의 그 한스러움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노인'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노인'일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간절하다뿐이었겠냐,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굶이굽이 돌아온 그 몸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의 목소리나 따듯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룩 날아가도 저 아그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끄새 저 아그 모습이 뛰어 나올 것만 싶어졌지나, 그래서 나는 굶이굽이 외지지만 한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식아, 내 자식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몸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여기서 과거에로의 회귀는 단순히 시간적인 그것만은 아니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기 존재의 근원, 꿈 모성공간에로의 회귀인 것이다.

“울기만 했겠냐 오목오목 닦어논 그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식아, 내 자식아, 부디 몸이나 성하게 지내거라, 부디 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을 빌고 왔제...”

여기에 이르자 마침내 ‘나’는 더 이상 빛이 없음을 강조할 수가 없게 된다.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빛진 게 너무도 많은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 부끄러움은 이미 ‘나’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설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땃땃함이 아닌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인식하기에 이른다. 드디어 ‘노인’과 ‘나’ 사이의 긴장은 극적인 화해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내의 역할은 결국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보편적 인간의식을 회복하여 ‘노인’과의 극적인 화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노인’과의 화해는 일종의 의식의 확장이며,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나’의 질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노인’과의 화해, 그것은 진정한 모자관계의 복원인 것이다. 이처럼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관계에 주체적으로 개입하고, 시어머니를 상대역으로 하는 사건전개를 통해서 남편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사실에서 여성의 성숙된 사회의식 내지는 수평화된 사회구조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 4. 여성 중간자의 설정과 기능으로 본 사회적 의미

조선후기 소설은 여성 중간자의 설정이란 점에서 크게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학적 현상이 그대로 사회적 현상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는 문학 사회학의 일반적 관점에 비춰볼 때, 조선후기 소설에서 처음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으로, 여성 인물이 중간자로 설정되고, 또 사건전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회의 구조적 변화 내지는 집단의식의 변

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우선 여성 중간자의 설정은 전통사회의 부정적인 여성관을 극복한 것으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여성은 남성권력 중심의 사회구조로 말미암아 남성에 비해 크게 불리하고 제한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아 왔다. 사회는 여성에게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남자를 섬기며 남자에게 의존하는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지위와 역할만을 허락했었다. 모든 여성들이 이같은 단일 행로를 추종해야 하는 사회구조 속에서는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이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이를테면 현상 유지의 수동성과 안일주의, 숙명론적 인생관, 전통적인 의존성 등이 마치 자연적이며 천부적인 것으로 의식되어 왔다. 따라서 가부장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결국 일종의 수단적 존재로 머물러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이 단순히 수단적 존재로 인식되는 한, 결코 개별적 자아의 성격을 갖는 중간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후기 소설에서 여성이 처음 중간자로 설정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가부장 중심의 전통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과 역할의 증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소설에서 여성 중간자는 주로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관계에 개입하고 갈등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을 서사적 기능의 일반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대체로 가정생활에 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가정생활에 한정되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여성의 피치 못할 근본적인 역할이며, 이것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이 조직되고 영위되어 왔기 때문이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의 안정된 인격형성과 사회성을 키워가는 것이 주어진 여성의 역할이요 책임인 것이다.

우리 소설이 여성을 중간자로 설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의 근본이자 축도라고 할 가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 중간자의 설정은 우리 소설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별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여성 중간자의 서사적 기능에 대해서도 여성 중간자의 설정에 못지 않게 나름 대로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스씨남정기」에서 설매는 부정적 이간자와 긍정적 안내자라는 이중의 기능 수행자이다. 여기서 이중의 기능이 모두 소극적인 것으로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설매의 신분이 시비라는 대기인하는 것이며, 신분적 제약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매가 개인적 동기와 욕구로 인해 상전인 사씨에게 살인의 누명을 씌우거나 기물을 훔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과거의 엄격했던 신분관념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전통적 신분관념이 동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설매는 가치관의 혼란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가치관의 혼란은 대체로 관념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집단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간과 안내라는 설매의 이중적 기능은 인간심리의 보편적 성향인 이중성까지도 상통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설매를 통해서 과거의 관념적이고 고정된 인간관을 극복한, 새롭게 발전된 인간관을 엿볼 수 있다.

다음 「潘氏傳」에서 媼母 楊夫人은 큰며느리 潘氏와 작은며느리 蔡氏·孟氏 사이에서 조성된 갈등관계의 해소를 위해 중간자로 개입하게 되나, 시모의 화해자로서의 기능은 끝내 시모의 뜻에 순종치 않는 蔡氏·孟氏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전통사회에서 시모라는 지위가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아 왔던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앞서 「스씨남정기」가 전통적 主奴關係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면, 「반씨전」은 시모의 절대적 권위를 거부하는 며느리들에 의해서 새로운 姑婦關係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과거의 수직적 이념과 질서에 대한 중대한 변화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烏有蘭傳」은 官人社會로의 진출에 실패했던 李生이 妓生 烏有蘭과의 만남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격변화를 겪게 되고, 관인사회의 一員으로 마침내 성공적인 편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간자로서의 오유란의 서사적 기능은 관인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한 김생과 이에 실패한 이생 사이의 갈등관계에 개입하고, 惡戲 모티프를 중심으로 이생을

상대로 하는 사건전개에서 주역으로 상승, 상대역의 성격변화를 통해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관인사회의 남성들과 기생들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하층신분에 속하는 기생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함께, 특히 퇴락적 사회풍조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눈 길」에서 아내의 서사적 기능은 ‘나’와 ‘노인’ 사이에서 조성된 긴장체계에 개입하여,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인간의식을 회복, 마침내 ‘노인’과의 화해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서 ‘오유란전’의 오유란과 마찬가지로, 상대역의 성격변화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내’의 경우, 그 역할이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점에서 수평적 이념과 질서가 지배하는 개방사회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이는 여성 자신이 과거 전통사회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극복한 결과이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과 역할의 증대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라 할 것이다.

## 5. 결 론

본고는 인물을 중심개념으로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그것에 종속시켜 소설독해를 일종의 인물연구로 간주하여 시도된 것으로서 중간자 인물을 따로 설정하고 이들의 서사적 기능과 사회적 의미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간자는 주인공과 적대자 사이에 제3자로 개입하는 인물이다. 그리하여 중간자는 표면상 부수적 인물에 속하기는 하지만, 중심인물의 어느 한쪽에 대해 일방적인 예속을 인정하지 않는 개별적 자아로서의 성격이 강한 존재이며, 중심인물들에 의해 성립되는 갈등의 체계 내에 직접 개입해서 사건전개에 다양한 형태로 이바지하는 인물이다. 중간자는 소설의 내적 구조에서 갈등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중심인물과 구별되고, 중심인물의 어느 일방에 단순히 도구적 존재로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여타의 부수적 인

물과도 구별된다.

2. 중간자의 작중개입은 결국 주인공과 적대자 사이의 양자관계를 삼자관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회학의 갈등이론을 원용하여 중간자의 작중기능을 분석하자면, 먼저 갈등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案內와 和解, 갈등관계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離間과 批判, 끝으로 갈등관계의 변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傍觀과 幫助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여기서 화해와 비판은 그 역할이 한층 적극적인 것이며, 안내와 이간은 보다 소극적인 것이라 하겠는데, 중간자가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경우, 때로 사건전개의 주도적 인물로 상승하게 되고, 특히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때는 갈등 당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 여성 중간자의 기능과 관련해서 여성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여성의 안정된 심리적 특질의 하나는 수동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수동성은 외부로 향한 활동성의 결여나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의미하는 바, 여성은 그만큼 내부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과거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극히 종속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개방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고, 그 역할 또한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 남녀관계에 있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 할 정치, 경제 및 가족구조적인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여성의 공적인 일과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그들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빈번해졌다. 여성에 대한 과거의 소극적, 부정적인 편견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 특유의 깊은 애정과 포용력에 의한 여성의 중간자로서의 역할, 특히 긴장관계의 해소를 위한 화해자적 기능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며,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4. 여성 중간자의 서사적 기능을 개별작품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스씨남정기」의 '설매'는 상전인 사씨와 교씨 사이의 갈등관계에 개입, 부정적 이간자와 긍정적 안내자라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潘氏傳」의 媼母 楊夫人은 며느리들 사이의 갈등관계에 媼母라는 전통적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개입하나, 일방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작은며느리에

의해 끝내 화해자로서의 서사적 기능에서 실패한 인물로 나타났다. 한편 「烏有蘭傳」의 기생 오유란은 관인후보자 이생을 상대역으로 하는 사건전개에서 주역으로 상승, 이생으로 하여금 인격의 해체 혹은 의식의 확장과정을 거쳐 김생과의 화해와 융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눈 길」의 '아내'는 '노인'을 상대역으로 하는 사건전개를 통해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보편적 인간의식을 회복하여 '노인'과의 극적인 화해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각기 중간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유란의 경우, 상하 수직적인 신분관계가 그 바탕이 되고 있는데 비해, '아내'의 경우는 수평화된 개방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5. 끝으로 여성 중간자의 설정과 기능에 따른 사회적 의미를 생각할 때, 우선 여성을 중간자로 설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을 단순히 수단적 존재로 인식하는 한, 결코 개별적 자아의 성격을 갖는 중간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개별작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여성 중간자의 기능양상으로 볼 때, 「스씨남정기」의 실매는 가치관의 혼란을 보여주는 인물로 과거의 전통적 신분관념이 동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반씨전」의 시모를 통해서 는 기성세대의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권위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엿보게 된다. 한편 「오유란전」의 오유란은 관인사회의 남성들과 기생들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특히 회극적 사회풍조를 짐작케 하며, 「눈 길」의 '아내'를 통해서 는 수평화된 개방사회에서 여성의 삶에 대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식과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